



↑ 기쁨(부정적 존재)

나는 이제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

슬픔(긍정적 존재) 소외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

역설법

겨울밤 거리에서 굴 몇 개 놓고

부정적 현실

살아온 추위와 떨고 있는 할머니에게

고난, 시련

사회적 약자

굴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던 너를 위하여

타인의 고통에 개의치 않는 이기적 모습

나는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 주겠다.

사회적 약자도 우리와 같이 평등한 얼굴로 보아야 한다

⇒ 슬픔의 새로운 의미

내가 어둠 속에서 너를 부를 때

고통 속에서 도움을 요청할 때

단 한 번도 평등하게 웃어 주질 않은

평등한 존재로 여기지 않은

가마니에 덮인 동사자가 다시 일어죽을 때

비극적 모습, 역설적

가마니 한 장조차 덮어 주지 않은

최소한의 관심

무관심한 너의 사랑을 위해

흘릴 줄 모르는 너의 눈물을 위해

타인의 슬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나는 이제 너에게도 기다림을 주겠다.

슬픔의 의미를 깨닫기까지의 시간

⇒ 이기적인 태도에 대한 비판

이 세상에 내리던 함박눈을 멈추겠다.

고난, 시련

보리밭에 내리던 봄눈들을 데리고

힘겨운 시련

추위 떠는 사람들의 슬픔에게 다녀와서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눈 그친 눈길을 너와 함께 건넌다.

기쁨을 포용하는 모습

슬픔의 힘에 대한 이야길 하며

소외된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

기다림의 슬픔까지 걸어가겠다.

소외된 이웃의 슬픔이 극복될 때까지

⇒ 소외된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삶의 다짐



성 격 : 의지적, 박애적, 상징적

주 제 :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에 대한 연민과 애정

긍정적 시어 : 나, 슬픔

부정적 시어 : 너, 추위, 어둠, 함박눈

특 징 : 말을 건네는 방식, ‘~겠다’의 사용으로 화자의 의지를 드러냄.

해 설

이 시는 이기적인 삶의 자세를 반성하고 소외된 이들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작품이다. '슬픔'을 의인화해 '기쁨'에게 삶의 깨달음을 전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기쁨'은 겨울밤 거리에서 추위에 떨며 굴 몇 개를 팔고 있는 할머니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고 굴 값을 깎으며 기쁨을 느끼는 이기적인 현대인을 상징한다. '기쁨'의 상징성은 어둠 속에서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를 무시하고 평등하게 웃어 주지도 않으며 동사자가 일어 죽을 때에 가마니 한 장조차 덮어 주지 않는 무관심한 존재로까지 확장된다. 그와 같은 '기쁨'은 '슬픔'에게 질책의 대상이다. '슬픔'은 소외받고 불행한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삶의 자세를 지녀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EBS 해설 인용)